

해외취업 해기사의 평생 임금 외화가득액, 1978-92

김성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

요 약 : 한국의 현대 해운업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해기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해외취업과 외화획득, 선원송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소유 등의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해운산업의 성장에 ‘내부·과급효과’와 ‘외부경제 효과’를 미쳤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해외취업선원의 외화획득은 경제발전 초창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외화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의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196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취업 선원들은 82억 6178달러를 벌어들인 데 반해, 과독 근로자들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억 15만달러를 국내로 송금한 데 그쳤다. 이 연구에서는 1978년에서 1992년까지 미국선사인 Lasco에 취업했던 해기사의 월급여명세서를 분석해 해기사의 평생 임금수입액을 계산해 볼 것이다. 분석 결과, 11년 5개월간 승선기간 동안 24만 3230달러(1억 6606만 7839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선기간 월평균 120만 5282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월평균임금의 약 3.8배에 상당하는 것이고, 1963-1977년까지 과독근로자 1인의 평균외화송금액 5273달러에 비해 46배에 상응하는 것이다.

핵심용어 : 해외취업, 해기사, 해양대학, Lasco, 외화획득, 월평균 임금

•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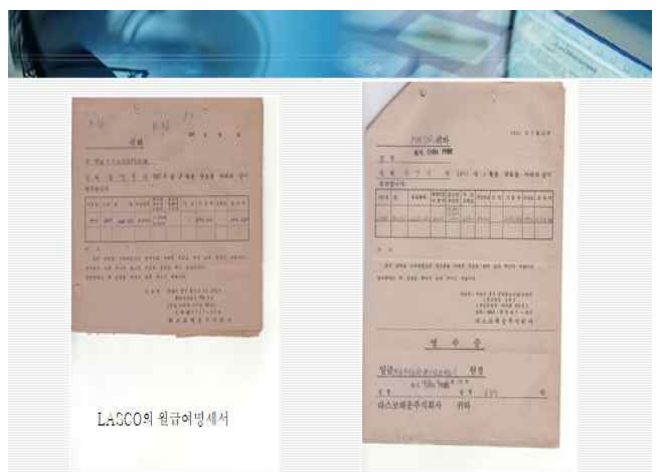
- 01 연구 배경
- 02 연구 자료 : 라스코 월급여 명세서
- 03 해외취업 해기사의 임금수입액
- 04 분석 및 평가

01 연구 배경

- 해외취업 선원의 경제적 기여
 - ① 해외취업 선원 외화획득액
 - 1965 - 1999 : 82억 6178달러 = 2억 3600만달러/년
자료 : 김성준 편, <소동주해기>,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20, pp.214-215.
 - ② 원경해운의 ‘산모기생’ 해외취업 선원의 외화획득액
 - 1967 - 1982 : 1억 4935만달러 / 1년 8915명 = 7895달러/인
자료 : 원경해운, <원경해운50년사>, 2012, pp.98-137.
 - ③ LASCO 해외취업 선원 추정 외화획득액
 - 1965 - 1999 : 1억 6754만달러 / 1년 4236명 = 1만 1769달러/인
자료 : 김성준 편, <소동주해기>,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20, p.213.
 - ④ 연구가계 : 선원/해기사 1인 외화 획득액
속질(복상임금의 3-4배) 검증

02 연구자료 - LASCO 월급여 명세서

- LASCO 월급여명세서
 - ① 김성수 JSM인터내셔널 사경
 - 1978년 7월 3항사 승선 후 1992년 5월 전장으로 하선
 - 월급여명세서 보관 : 1978.8 - 1992.5
 - 월급여명세서 구성 : US\$ 월급여, 환율, 원화, 국민저축, 해기원회비및조합비, 음근세+방위세+주민세, 기타 송금액, 기타 항목(분우이웃돕기 성금, 동창회비, 본인기부 등)
 - ② 조진희 한국해대 명예교수
 - 1979년 4월 3기사 승선 후 1994년 5월 기관장으로 하선
 - 월급여명세서 보관 : 1985.3 - 1993.1 (분실됨본이 많음)



† 교신저자 : 종신회원, sjunekim@kmou.ac.kr

LASSCO 김성수의 선원기록부

03 해외취업 해기사의 임금수입액

자료 분석

- 김성수
 - 1976년 북포레양진판매대 방과과 졸업
 - 1976-1978 : 해군 복무
 - 1978-1980 : LASSCO 승선 근무 및 육상선조신검독 근무
 - 1998 - 현재 : JSM International 상무 및 린 사장

승선 이력

직책	승선 기간	기타
3/O	1978. 7.24 - 1980. 5. 6	휴가 : 1979. 4.3 - 10.2
2/O	1980. 5. 7 - 1981. 11. 24	Actina 2/O : 1980. 5.7 - 1981. 8.31
C/O	1982. 2. 22 - 1986. 12. 31	Actina C/O : 1982. 2. 22 - 7.31 휴가 : 1982. 11.1 - 11.29 / 1982. 10. 6 - 84.1.3 신포함륙 : 1985. 1.31 - 9.10
Capt.	1987. 1. 1 - 1992. 6. 22	Actina Capt. : 1987. 1.1 - 9.16 휴가 : 1987. 9.17 - 11.17 / 1989. 4.12-6.16 / 1990. 4.26-6.23 / 1991. 5.21-11.29 / 1992. 6.23-8.6

자료의 성격 및 분석 기준

자료의 성격

- 1978년 8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약 15년간의 원임금명세서
- 3항사부터 선장까지의 직급 원임금명세서
- 승선 기간 중 일부(승선 6개월+육군 6개월) 원임금명세서 분석
- 승선 첫 달과 마지막 달(휴가비, 대명비 등 포함)은 원임금이 다른 달의 원임금과 차이가 남.
- 라스코의 선원기록부(승하선 및 기본급이)
- 전 기간에 걸쳐 본신불 가불은 전혀 없음. 따라서 본신불은 별도 추정할 필요가 있음.

자료 분석의 기준

- 본신불 원의 인금은 동일 직급의 전달 또는 다음달의 원임금으로 추산
- 승선 또는 육상근무 기준 원임금(세전, 전과 기준) 수령액을 합산 = 수령액(A)
- LASSCO의 <선원고용규칙>(1984.9)의 직급별 기준 원임금과 비교(B)
- 당시 LASSCO 제적자(변세진, 김일기, 이권두 등)의 직급에 따르면 본신불이 가족 승급액의 30% 정도 있다고 함. 따라서 원수령액의 30%를 본신불로 가산함 = C
- 실제 수입액 = A + C

직급별 임금 수입

직급	승선(근로)기간	총 수입액(원)	평균 월급액(원)
3/O	1978. 7.24 - 1979. 4.20(월 15일) 1979. 10.22 - 1980. 5.6(월 14일)	380만 0181 (87509)	25만 3345(15월 승선) 20만 6531(월 12일)
2/O	1980. 5.7 - 1980. 11.3(월 25일) 1980. 12.6 - 1981. 11.24(월 18일)	845만 0007 (81만 2603.95)	48만 3964(17월 14일 승선) 45만 5280(월 10일)
C/O	1982. 2.22 - 1982. 10.30(월 8일) 1982. 11.21 - 1983. 10.22(월 7일) 1983. 11.31 - 1985. 3.10(월 71일) 1985. 10.16 - 1986. 7.31(월 21일) 1986. 8.26 - 1986. 12.31(월 5일)	6471만 9957 (81만 3462.83)	124만 1511(승선) 111만 0119(승선)
Capt.	1987. 1.1 - 1987. 9.16(월 15일) 1987. 9.17 - 1987. 11.17(월 21일) 1989. 4.12 - 1989. 4.25(월 7일) 1989. 6.24 - 1989. 5.20(월 21일) 1991. 11.30 - 1992. 6.22(월 23일)	1억 0136만 7874 (84만 3575)	190만 5411(승선 6월) 154만 2186(승선 22일)
Total Sum		1억 6908만 7839 (84만 3230.7)	120만 5282(11월 5일 24일 승선) 103만 1602(13년 5월 10일)

04 분석 및 평가

연도	제적외 정규 원임금*	환율
1978	92,907	484.0
1979	149,615	484.0
1980	146,684	669.9
1981	176,176	700.5
1982	202,117	748.80
1983	226,790	795.50
1984	245,261	827.40
1985	269,652	890.20
1986	284,465	861.40
1987	328,696	792.20
1988	393,056	684.10
1989	491,632	679.60
1990	590,760	713.40
1991	690,310	760.80
1992	786,548	788.40

* 원가은행, <경제경영정보>, 1995. p.11.

연도	라스코취급				
	비율 승선	비율 육군	본신불 승선	본신불 육군	총수령액(원)
1978	21	208	8,000	6883 + 459	59,679
1979	20	590	9,000	6792 + 454	55,928
1980	21	505	11,700	6976 + 550	64,828
1981	19	232	12,000	81,000 + 700	700,000
1982	16	390	12,000	81,000 + 740	748,000
1983	17	476	12,000	81,000 + 790	834,790
1984	17	476	14,000	81,217 + 827	1,008,652
1985	16	448	14,000	81,217 + 900	1,083,100
1986	16	420	16,000	81,263 + 861	1,190,793
1987	15	324	16,000	81,263 + 792	1,089,336
1988	13	304	16,000	81,500 + 694	1,089,200
1989	17(1)	429	18,000	81,890 + 679	1,062,480
1990	17(1)	429	20,000	81,716 + 713	1,228,506
1991	18(2)	406	20,000	81,716 + 790	1,204,180
1992	14(4)	368	22,000	81,693 + 788	1,403,034

* <소통수첩>, 2019. pp.214-216의 수치를 한 단위 인하여 환산함.

04 분석 및 평가

단위: 원

시기	선원기록부 (기본급+연가봉) x 환율	평균 월급액	본신불 30% 가산액
1978-1980.4 (3/O)	\$454 x 542 = 24만 6068	25만 3345 20만 6531	32만 9348 26만 8490
1980.5-1981.11 (2/O)	\$588 x 680 = 39만 9840	48만 3964 45만 5280	62만 9153 59만 1864
1982.2-1986.7 (C/O)	\$931 x 824 = 76만 7144	124만 1511 111만 0119	161만 3964 144만 3154
1986.8-1989. 4 (Capt.) 1989.6-1992.6 (Capt.)	\$1,175 x 754 = 88만 5950 122만 7666	190만 5411 154만 2186	247만 7034 200만 0484

* LASSCO의 <선원고용규칙> 1982.9 시행, 1항사의 원급이(기본급+퇴직수당+면허수당)는 1.420달러임(원 712원이 라스코 원 106만 9160원)

04 분석 및 평가

시기	본선분 30% 가산액(A)	LASCO 1인 월급여 추정액(B)	산포라인 1인 월평균 임금(C)	재 조업 정규직 월임금(D)	A/B	A/C	A/D
1978-1980.4 (3/O)	32만 9348 26만 8490	45만 2141	\$927 (=50만 6601)	11만 9702	0.72 0.59	0.65	2.75 2.24
1980.5-1981.11 (2/O)	62만 9153 59만 1064	67만 1262	\$1005 (=68만 2850)	16만 1430	0.94 0.88	0.92	3.90 3.67
1982.2-1986.7 (C/O)	161만 3964 144만 3154	97만 2455		26만 1166	1.66 1.48		6.18 5.53
1986.8-1989. 4 (Capt.)	247만 7034 200만 0484	120만 1460		51만 2498	2.06 1.66		4.83 3.90
1989.6-1992.6 (Capt.)							

* 원경해운, <원경해운50년사>, 2010, pp.93, 137의 자료를 해당 기간의 평균 월임금으로 환산.
** 한국은행, <경제성장계연보>, 1995, p.11의 해당 기간의 평균 월임금

요약 및 평가



요약

- 1976년 복포해운 출범후 1978년부터 1992년까지 해기사단 승선
- 11년 5월 24일 승선 기간 전체 1억 6600만 7839원(24인 3230달러)의 수입을 획득
- 승선기간 월평균 수입 = 120만 5282원
- 재외기간 월평균 수입 = 103만 1602원
- 이는 순수 가족수당분이며, 본선분 30%를 가산해나 실제 총 수입액으로 추정됨



평가

- 우리나라 제조업 정규직 월평균임금과 비교 결과 = 평균 3.0배 수입 획득
 - 3항사 제직시는 약 2.2배 / 2항사 제직시는 3.7배
 - 1항사 제직시는 약 5.5배 / 선장 제직시는 약 3.9배
- 의의
 - 승선임금이 **복상임금의 3~4배** 많았다는 확실 확인
 - 1963-77년 **파독근로자** 1만 8993명이 1억 15만달러, 즉 1인당 14년 동안 6273달러를 송금한 것에 비해 미국 후대이전 하나 같은 기간 동안 **46배**를 번 것임.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편다.

by Friedrich Nietzsche

Thanks for your kind attention!!